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초록)

1 회의개요

- 일시: 2019. 04. 19.(금), 16:08~18:10
- 장소: 서울, 롯데호텔 월드 3층 루비홀
- 참석자
 - 의장: 회장 유준상
 - 출석대의원: 재적대의원 19명 중 15명 출석
김정철(부산), 심경연(광주), 김태식(세종), 남성우(경기),
김순교(강원), 최철희(충북), 김성수(충남), 박동희(전북),
이영륜(전남), 엄용대(경북), 강석주(경남), 유영준(레이저),
이현승(옵티미스트), 최홍석(J24), 지매화(장애인연맹)
 - 감사: 행정감사 김우현

2 회장님 인사말

반갑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실은 지난 해 5월 17일 선거를 통해서 90% 이상의 지지를 받고 당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서 인준 불가 통보를 받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심적인 고통과 그리고 최초의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을 걸고 요트 스포츠의 발전을 위하고 요트협회를 한 단계 높여서 대한체육회의 대표 종목으로 총괄 육성 해보겠다는 열정을 갖고 시작했지만 저에 부덕의 소치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지난 해 12월 28일 대의원총회에 10명의 참석 대의원들이 회장서리라는 직책을 갖고 열심히 해달라는 의결을 받아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것도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직무대행으로 해야 된다, 하물며 이번 판결에서도 이런 직무대행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 불법이다 하는 것도 소송에서 승소를 받으려했습니다. 물론 5월 2일 소송의 최종선고 날짜가 잡혀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결과를 뭐 예측할 수 없지만 반드시 승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것도 제가 예측을 해서 이미 저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다시 회

장 지위에 대한 확인 소송에서 법적으로 임시 회장으로 법원에 판결이 날 때까지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수행 하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대의원총회를 정상적으로 소집을 해서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제가 주관하게 된 것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저의 열정을 갖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요트에 대해서도 아는 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열정은 어느 누구보다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맨입니다. 원래 유도 5단 그리고 배구선수를 거쳐서 제가 과거에 레슬링 협회 그리고 롤러연맹회장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야 멀리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되서 협회의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논의결과(주요내용)

I. 전차회의록 초록 : 원안접수

1. 2018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2018.12.28.) : 원안 접수

II. 보고사항

1.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 피감 결과 : 원안 접수
2. 제18회 아시아경기대회 평가 및 개선 방안 : 원안 접수
3. 대한원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 제명 : 원안 접수
4. 시·도 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 현황 : 원안 접수
5. 2019년도 전국종합체육대회 변경 사항 : 원안 접수
6.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 조건부 원안 접수
7. 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결과 : 원안 접수
8. 임원 보선 : 원안 접수

Ⅲ. 심의사항

1. 2018년도 정기자체감사 결과

가. 주요내용

- 김우현 감사가 2018년도 감사보고서를 낭독함.

나. 참석자 주요발언

- (최홍석) 4페이지 국가보조금 관련 임원가족이 협회 연맹체 채용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우현 감사)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답변할 수 없음에 양해를 구하며, 의장께서 이 건에 대하여 조사를 지시하시면 상 위단체 또는 사법기관에서 조사한 후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감사보고서를 접수하면, 회장 업무인계위원회에서 행정진단과 회계검사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서 추후 대의원총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논의 결론: 원안 의결

2. 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가. 주요내용

- 2018년도 결산 요약 보고

세 입			세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자체수입 ₩200,185,502	찬조금	19,800,000	국가대표강화훈련	1,443,408,354
	후원금	20,000,000	포상금	20,500,000
	기금과실금	45,893,908	후보선수훈련비	209,513,343
	자체수입	59,891,594	청소년훈련비	133,913,886
	연맹체지정기부금	54,600,000	국제체육교류	13,426,410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단체육회지원) ₩2,101,352,531	국가대표강화훈련	1,252,848,050	전국&국제대회개최	796,634,664
	후보선수육성비	208,282,343	전문인력양성	14,546,609
	청소년선수육성비	133,913,886	국제전문인력사업	39,980,877
	국제체육교류	3,421,295	국내회의개최	6,014,920
	국제전문인력사업비	39,980,877	인건비	230,035,408
	체육지도자	1,200,000	운영비	54,306,693
	경기력향상지원비	164,980,200	생활체육운영비	114,119,890
	회원종목단체지원	164,020,920	연맹체지정기부금이관	54,600,000
	생활체육운영비	114,119,890		
	국내종합대회지원	18,585,070		
보조금 ₩762,115,987	대회지원비	762,115,987		
전년도이월금 ₩-6,860,951	전년도이월금	-6,860,951	차기이월금	-74,207,985
총 계		3,056,793,069	총 계	3,056,793,069

나. 참석자 주요발언

- (김순교) 차기이월금이 마이너스 7,400여만원인데 내역이 무엇인지?
- (사회자) 약 2,000여만원은 아시안게임 포상금, 직원들의 인건비 2천여만원 있고 작년 소년체전 위원수당 및 스포츠평정위, 경기력향상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등 행정비입니다.
- (김순교) 경상비에서 꼭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는 4월 11일 기금의 과실금이 나왔다고 하니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지급이 되었나?
- (의장) 4월 11일 처장 직무대행이 얘기 했는데, 회장업무인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하여 유보를 했는데, 지급하도록 하겠다.

나. 논의결론: 원안 의결

3. 정관 개정

가. 주요내용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나. 참석자 주요발언

- (김정철) 우리 회장님 새로 오셨고 지금 협회가 정관 개정할게 많이 있어요. 지금 수익사업 등이 전혀 없으니 정관을 일괄 개정해서 한 번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 (유준상) 사무처에서 이사회에서 검토 한 정관 개정안을 체육회로 검토 요청하였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김정철 대의원의 말씀하신 것과 이사들과 상의하고 회장업무인계위원회도 거쳐서 하겠습니다.

나. 논의결론: 재검토하기로 의결

4. 감사 선임

가. 주요내용

- 2017-2018 감사의 임기가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일에 만료됨에 따라 2019-2020 감사를 선임함.

구 분	인원수	자격요건	임 기
행정감사	1명	협회 대의원	2019년도 정기총회일 다음날 -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
회계감사	1명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	

나. 참석자 주요발언

- (최홍석) 강원도요트협회 김순교 회장을 추천합니다.
- (최철회) 최홍석 회장을 추천합니다.

- (최홍석) 감사합니다만, 고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순교 대의원을 감사로 선임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 (전체) 동의합니다.
 - (의장) 회계감사는 또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회계 감사 하신분이 잘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회계감사는 제가 별도로 추천하는 회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이름은 발표할 수 있지만 추후에 보고하기로 하고 그 선임권을 저에게 위임해주시면 어떻습니까?
 - (전체) 동의합니다.
- 다. 논의결론: 행정감사는 김순교 강원도요트협회장으로, 회계감사는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함.

5. 임원 해임

가. 주요내용

- 정관 제11조(임원의 불신임)에 대하여 심의 의결함.

나. 참석자 주요발언

- (의장) 제11조에 보면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 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1년이 경과해야한다. 다만 해당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을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3. 해임하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5.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관련조항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 (김정철) 안건상정에 문제는 없나요? 임원해임 안건상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대의원에서 상정을 다시 하는 게 어떨까요?
- (김순교) 안건으로 상정이 되려면 대의원 100%가 찬성을 해야지 안건이 되고 그 다음에 재적대의원 3분의2가 찬성 해야지 해임이 되어되는거 거든요. 이 경우에는 기타 안건에서 대의원들이 찬성하면 그게 안건으로 되고 그 안건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사회자) 해임안 자체는 재적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서 발의를 하는

겁니다.

- (의장) 정관 11조 3항에 대한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의 발의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9명중에서 10명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의원 19명이니까 과반수인 10명 입니다. 10명의 찬성으로 발의 되는데 발의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든 사람을 확인)
- (의장) 남성우 대의원만 빠졌습니다. 녹취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14명 참석자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발의가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안건이 됐음을 가결합니다.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 의결해 주셔야 합니다. 각자 얘기하고 싶으신 분은 얘기를 하세요.
- (김정철) 그냥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이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또 이제 회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회장님에게 위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순교) 지금까지 우리가 회장님이 취임하시면 임원 선임 권한을 다음 정기총회까지 드렸어요. 왜냐하면 회장님이 그래야 집행부가 못하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장님 권한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분 회장님들한테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지금에 우리 그 이사님들이 일을 못했다 잘한 분도 계시고 저희도 다 알잖아요 우리 대의원님들이 유준상 회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또 만약에 내년 일을 뭐 임기전까지 일 열심히 못하시면 우리가 대의원대에서 회장님도 불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과 권한을 같이 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책임만 추궁해가지고 협회를 또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대의원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회장님한테 집행부 구성권을 드리고 다음 총회에서 보고 받는 걸로 하는 게 제의견입니다.
- (엄용대) 회장님께 위임을 하자 이러면 대의원님들이 위임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위임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대한요트협회가 선수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시도협회에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의장) 대표권을 갖는 이사인 유준상을 제외한 소위 그 임원들에 해임할 발의 해 주시고 의결 해주시면 제가 대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 가지고 선임은 규정에 국가대표선수 그 외에 이어서 등등 선발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실무자들과 협의해

가지고 본인들의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도록 이의 없으시면 의결해주시시오.

○ (전체) 동의합니다.

○ (사회자) 전원 찬성으로 해주신 것으로 기록하면 되겠습니까? 대의원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15명 전원찬성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전체) 이의 없음.

다. 논의결론: 재적대의원 19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임원 해임안을 상정하고, 재적대의원 19명 중 15명의 찬성하여 유준상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부분 해임을 의결함.

※발의 대의원 (재적 19명 중 14명)

김정철(부산), 심경연(광주), 김태식(세종), 김순교(강원), 최철희(충북), 김성수(충남), 박동희(전북), 이영륜(전남), 엄용대(경북), 강석주(경남), 유영준(레이저), 이현승(옵티미스트), 최홍석(J24), 지매화(장애인연맹)

※찬성 대의원 (재적 19명 중 15명)

김정철(부산), 심경연(광주), 김태식(세종), 남성우(경기), 김순교(강원), 최철희(충북), 김성수(충남), 박동희(전북), 이영륜(전남), 엄용대(경북), 강석주(경남), 유영준(레이저), 이현승(옵티미스트), 최홍석(J24), 지매화(장애인연맹)

6. 임원 선임

가. 주요내용

○ 정관 제11조(임원의 불신임)에 대하여 심의 의결함.

나. 참석자 주요발언

○ (최홍석) 일전에 정제묵 회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총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로운 이사님을 선임할 때 예는 대의원님들 몇 분 들어가서 회장님은 잘 모르니까 어떤 분이 어떻다는. 결국은 제 제안이 안됐습니다. 앞전에 박순호 회장님 시절에는 정동배 경상남도요트협회장님같은 경우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정동배 경남회장님께서 이사 선임을 권한을 가지고 회장께 권고를 한 겁니다. 최종결정은 회장이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이사를 뽑 때는 회장님이하 몇 분 중에서 우리대의원이 최소한 2~3명이 들어가서 그거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떻겠는지 제안 드립니다.

○ (의장) 그러면 지금 대의원이 얘기한 말씀을 제가 해당 업무 인계위원

회 거기 대의원을 한 두 어분.

- (사회자) 정관 제22조 제2항에 있는 것처럼 회장께 위임을 한 경우에 선임권한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는 위임받은 후 첫 번째 이사회 직전까지입니다.
- (의장) 전체적으로 일대 쇄신해서 잘해보자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사회까지 이 문제를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논의결론: 회장에게 임원 선임권한을 위임함.

V. 기타 사항

1. 기타 주요 발언

- (최홍석) 2020 올림픽을 대비하여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국가대표 감독의 총평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형태 국가대표 감독의 총평) 요트감독 김형태입니다. 요트국가선수 포함 선수 21명의 지도자 6명 27명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궁금한 부분에 말씀드리면 6월28일 부터 9월 27일까지 종목별로 각각 일본 에노시마에서 종목별로 시합이 있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가 내년엔 올림픽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그때 또 올림픽 티켓을 지금 따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림픽종목이 10개 종목 중에서 5개 종목에 올림픽에 출전을 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 레이저에서 하지민 선수가 올림픽 티켓을 갖고 있고 레디알하고 RS:X, 470 4종목을 확보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디알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티켓이 전 세계에서 44개 올림픽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것이 12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어떤 그런 전략사업으로는 일본은 자동 출전이고 중국은 레디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남녀비율을 해서 조금 더 티켓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레디알종목 에서는 확보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한 80%이상 됩니다. 대륙 티켓이 있는 데 아시아권에 그 2개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이 지금 뺏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레이시아 하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별 이변이 없는 한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대륙 티켓에서 확보할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 RS:X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스물네개의 티켓이 있는데 현재남아 있는 티켓이 9개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스페인하고 영국에 시합을 나가갔고 있고 지금 국내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1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안에는 충분히 들어가겠다는, RS:X같은 경우에는 조금훈련을 조금 더...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선수가 올림픽에 메달을 땀습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선수들이 그 있지 않겠나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 19개 4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는 2024년에 파리올림픽에서 지금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떨어지지만은 대륙 지금 티켓의 하나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동출전이고 일본은 우리나라 하고 조금 어떤 실력차이를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지금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하고 어떤 일본 중국하고 한국하고 러시아 사실 원래 12월 달에 중국에서 470대륙시합이 있는데 중국에 어떤 그런 텃세 그런 것도 국제대회 그런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470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자동출전입니다. 그래서 대륙 티켓에서 저희들이 아시안 게임에 신설 본보기고 했지만 현재어떤평가로는 일본 빼고 더 일순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제상대로는 인도하고 한국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240일 훈련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점적으로 부산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부산에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도 있겠지만 에노시마 바다 컨디션하고 부산하고 약간 컨디션 하고 어떤 최적에의 훈련장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선수들도 지금 일본에 베이스캠프를 차리지 못하는 선수들은 조금, 경제적으로 나라에서 부족하고 그런 선수들은 한국하고 부산에 와가지고 베이스캠프를 차려서 훈련하다가 일본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 (최홍석) 유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부산을 출발서 금강산을 가는 대회를 꼭 유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강석주) 엘리트스포츠 외에 밖에 있는 일반 동호인 요트인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18:10 의장의 폐회 선언)